

2008 미국의 선택

민주 전당대회

오바마 첫 흑인 대선후보 공식 지명

힐러리, 호명투표 중 만장일치 추대 제안 클린턴 “오바마는 준비된 후보” 지지 선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오른쪽·일리노이주)이 27일 덴버의 펠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중 자신의 러닝 메이트 조 바이든 상원의원(왼쪽·델라웨어주)과 함께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펠시센터에서 사흘째 전당대회를 열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대선후보로 정식 지명하고, 오바마를 중심으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바마 의원은 미국 역사상 주요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며, 28일 인베스코 풋볼 경기장에서 7만5천여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전당대회 최종일 행사에서 후보지명 수락 연설을 하게 된다.

오바마의 이날 연설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45년 전 “나는 꿈이 있습니다”는 유명한 연설을 한 기념일과 겹치며, 대선후보의 옥의연설은 1960년 존 F 케네디 후보가 로스앤젤레스 콜로세움에서 8만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각주별 대의원들에 대한 호명투표(roll call)를 거쳐 오바마를 대선후보 최종 결정하려 했으나, 호명투표 진행 도중 대선후보에 명단을 올린 힐러리가 “오바마를 대선후보로 선언하자”고 전격 제안, 나머지 주들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오바마를 대선후보로 지명했다.

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날 행사가 마무리되는 순간 연단에 갑자기 나타나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지명을 축하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6년 전 자신이 대선도전에 나섰을 때 군통수권자로는 너무 젊고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런 주장은 먹혀들지 못했다며 47세의 초선 상원의원 출신인 오바마에게 젊음은 문제가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인 조지프 바이든의 지혜와 경험, 오바마의 증명된 이해력과 통찰력, 본능이 결합된다면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국가안보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는 헌법을 유지, 수호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대선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은 “우리가 11월에 군통수권자를 선택할 때는 상원에서 얼마나 제임했고 얼마나 살아왔느냐가 기준이 돼선 안된다”며 70대의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연합뉴스

오바마-매케인 본격 선거운동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오는 29일부터 부통령 후보를 각각 동반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착수한다.

오바마는 29일 펜실베이니아주로 가서 부인 미셸,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조지프 바이든 후보 부부와 함께 ‘변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버스투어를 시작한다. 오바마는 30일엔 오하이오주, 31일에는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받는 등 본선을 겨냥한 첫 선거운동을 이번 대선의 격전지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공업지대)’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내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29일 오하이오주 데이톤에서 유세를 가질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를 발표하고 첫 공동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교통사고 목사 등 한국인 10명 사망

“빗길 과속으로 미끄러진 듯”

필리핀 북부 판가시안 주(州)에서 한국인들이 탄 차량이 27일 오후 빗길에 미끄러져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현지에 거주하는 선교사 2명과 방문 교인 8명이 탄 승합차량이 이날 낮 12시30분께 루손섬의 판가시안 주 불리나오 인근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편에 있던 철물가게를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서울 ‘꿈꾸는 교회’ 박수진(52) 담임목사와 부인 한연오(52)씨, 이 교회 광병배(33) 부목사와 부인 최미경(35)씨, 같은 교회 박태성(38) 부목사, 진해 ‘꿈꾸는 교회’ 박성돈(46) 담임목사와 부인 정정희(46)씨, 딸 박보아(5)양, 그리고 바기오 거주 교민 이수권씨와 이인철씨다.

필리핀 북부 루손한인회 이준성 회장은 “현지 경찰에 따르면 북부 휴양도시인 바기오를 방문한 뒤 인근 불리나오로 가던 한국인들이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편에 있던 철물가게를 들이받고 몇 바퀴를 구른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가 난 길이 경사가

지거나 상태가 나쁜 곳이 아니어서 빗길에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인근 불리나오의 병원에 안치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도착하는 대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 꿈꾸는 교회는 이날 밤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14명 내외의 장례위원단을 구성, 28일 유족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필리핀으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는 “목사님들이 휴가 일정을 맞춰서 필리핀 현지 청년 봉사·교류·선교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 월~토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고 직전 방문했던 바기오는 해발 1천 500m에 위치한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여름철 휴양지로, 한국인들도 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관광객을 합쳐 한국인들의 수가 1만명에 이르기도 한다. 사고가 난 불리나오 지역은 지대가 가파르고 강들이 자주 출몰해 야간에는 통행을 자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美, 한국 방위비 분담금 6.6~14.5% 증액 요구

정부 “물가상승 감안 2.5% 증액”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이 같이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4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부터 개최된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천여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자금을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각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국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전력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급 방법을 놓고 미국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물가지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꼭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 5일 | 꼭내영고시학원 | ☎ 529-0090

유·초·중·고 임용고시의 모든것!

교원임용문제설명회

2008년 9월 17일 (수) 14:00~17:00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1 (남대동 1-1) 1층

문의: 010-9700-0000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9월 29일(토) 14:00~17:00

문의: 010-9700-0000

2008년 제7기

한글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9월 29일(토) 14:00~17:00

문의: 010-9700-0000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9월 29일(토) 14:00~17:00

문의: 010-9700-0000

2008년 제7기

한글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9월 29일(토) 14:00~17:00

문의: 010-9700-0000